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10. / (총 8매)			
중양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당자 담당자	이 선 영 조 영 대 임 예 슬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당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양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	팀 장 담당자	유 보 영 박 지 혜	전 화	044-202-3713 044-202-37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 점포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고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1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제1차 회의를 4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오늘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총 위원 18명 : 불임 1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상호 공유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 날 회의에서 “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거둔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논의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모아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페인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가족들이 4월 11일, 13일 두 차례로 나누어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교민 및 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에 2차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스페인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붙임 >
1.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붙임1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	1차장(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이윤성
서울대학교(감염전문가-소아청소년)	교수	최은화
서울대학교(감염전문가-성인)	교수	김홍빈
국립암센터(예방의학 전문가)	교수	기모란
한림대학교(역학 전문가)	교수	김동현
한림대학교(의료감염 전문가)	교수	이재갑
서울대학교(직업환경 전문가)	교수	홍윤철
국립중앙의료원(직업환경 전문가)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주영수
세종대학교(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교수	이귀옥
서울대학교(사회학)	교수	장덕진
서울대학교(보건경제학 전문가)	교수	권순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유종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홍식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영수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은경
범정부지원대책본부(행정안전부)	제2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제임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상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중요일부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원 위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만을 거듭한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여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자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을 위해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료인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는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판사가 하루라도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나 겠나.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이 집권 의료진의 몸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남주 부총장 직무 정장은 마스크 보폭과 복도
조도 불균이 부족하다는 의뢰기관의 호소에 “왕도
고고”고 쓰고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시각 일부의
사는 보복금이 없애서 건물 사용 가운을 없애고 했다.
정부는 또 의뢰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
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코로로 농담을 놓았다. 폐렴으로
숨진 1차 소년에게서 10월 19일 양성반응이 한 차례
고 앞 앞을 차례는 음성 1번과 검사자 잘못됐다
며 병원 1차 배패를 지니었다가 집까지 왔는데도 안
있었다. 도무지 찾는 못발명정 쪽배를 꺼려 들어와야
되겠는가. 대환의사협회는 “나서 달라고 음습하게
가 사람이 좋아지고 지대 균형하러 드는 도인이
전래의 비명질들에게 누름을 씌운 무능한 조선 관
리를 연성계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딱딱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천-아산에 격리된 고인들이 받았던 '침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침와대 밥차'가 의료진에 당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입 간헐자택’ 비상

무엇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였어? 하고 힘들고 의욕도 잃었다.” 백련
은 이 사실을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심정으로 일간지 금강산
에, 외국인 지참번호의 일부의 국호
들이 없다고 한다”는 보도였다. 외교
부의 또 다른 기본인 상호주의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정부 기와 내각 간인
의사 일체로 볼게 된게, 이게 한국 외교
의 현실이다.

경제 발전 정도, 그리고 노년 인구의 비중 같은 나라별 특성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사회적 특성이 노년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고, 경제 개발 단계에 따라 노년 빈곤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년 빈곤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는 두 가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나는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의지, 다른 하나는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고할수록 노년 빈곤이 줄어들고,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약할수록 노년 빈곤이 증가한다.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것은 노년 빈곤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대안이다.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조처가 대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까지 일방적으로 조처를 하기로 한 이유다.

실황이 어떤데도 한국 정부만 일방적으로 조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갑열왕 차 단' 해구기 및 박치기 등한한 조처가 '모든 해외의 일과자 2조가 의무적으로 결산'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게 하는일이 너무나 벌어지고있다.

news24news.com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붙임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